

광주시 4년간 2조9000억원 투입 전략산업 키운다

전략산업 혁신성장협의회 매출액 37조원으로 늘리고 2만 4000명 신규고용 창출 8대 산업, 98개 세부과제 제시

광주시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출액을 37조7000억원까지 늘리고 신규 고용을 2만3800여 명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에너지산업 9300억원, 자동차산업 5300억원, ICT(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4700억원, 의료산업 32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산업은 800억원, 656명, 자동차산업은 3조2000억원, 8119명, ICT(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은 1조원, 4500명, 의료산업은 8000억원, 3000명 등의 매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했다.

이 외에도 가전산업에 1200억원(매출 1200억원, 고용 창출 411명), 광산업 3600억원(1조원, 4487명), 뿌리산업 600억원(5000억원, 1000명), 공기산업 1200억원(2000억원, 1670명) 등을 투입한다. 시는 8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기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학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협의회'를 개회하고,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광주시가 지역 유관 연구기관, 자치구, 대학 등과 함께 산업별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혁신성장

협의회와 산학연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대내외 환경과 국가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지역 산업경제 현황과 구조를 분석해 지역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시의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광산업 ▲에너지산업 ▲의료산업 ▲뿌리산업 ▲ICT융합 ▲공기산업 등 8대 산업, 34개 전략, 9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완성차 공장 유지' 등이 주요 골자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전산업은 다른 산업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가전산업을 발전시키고, 'AI와 융합기술 개발' 등 특화분야 혁신기반 확대 및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은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산업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발맞춰 '한국의학연구원 유치',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 자원' 등을 실시해 광주시 의료산업 규모 확대, 경쟁력 구축을 꾀한다.

뿌리산업은 기존 재래 생산방식을 탈피한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고용 효과를 높일게 된다.

ICT산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과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역량 확보에 나선다.

공기산업의 경우 '공기산업진흥원, 성능실증센터 설립'과 '공기산업 사업화 및 기



문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차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술 지원' 등을 통해 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기업,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해 산업별 육성전략을 보

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일 '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 협의회' 기획 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추가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정은 방러, 시진핑 방북 전망 한반도 새질서 만들어지고 있다”

문대통령 국무회의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루어질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견한 시간이 총 5시간 30분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난 시간은 2시간 15분과 1시간 30분 오찬을 포함해 총 3시간 30분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보다도 2시간 더 길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충분한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도 김정은도 “조속 만남”...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

북 “실무협의 조만간 열릴 것” 핵사찰 카드로 조기개최 유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 이후 북미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모습이다. 1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 관계 건설 등에 합의한 양 정상은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대조하는 날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폼페이오 방북 협의 직후 직간접적으로 나온 양 정상의 반응에도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메시지가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후 작별하면서 “조만간 제2차 조미(북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보도한 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5차례나 등장했다.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 정부 내 전문가들의 불신을 넘어선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틀다운(최고 지도자 사이에 먼저 합의한 뒤 아랫급에서 협상하는 방식)’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북측의 지배적인 인식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당장 외교가의 관심은 북미가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이 언제 열릴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 7월초 폼페이오 3차 방북 직후 미국이 실무협상 추진을 발

표한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은 이번 폼페이오 4차 방북 직후 “제2차 조미(북미) 수뇌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데 대하여 합의했다”고 중앙통신을 통해 직접 발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결국, 조만간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에서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할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관심은 북한이 지난 5월 이뤄진 폐기리 핵실험장 폐기를 확인할 미국 측 사찰단의 방문을 요청한 대목이다. 평양 공동선언(지난달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포함된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지니어링 등 폐기방안에 이어 핵사찰·검증과 관련한 또 하나의 카드를 제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와의 함수 관계도 관련 포인트다. 외교현안인 북미협상이 미국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와 관련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차후 북미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데 양측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거 결과의 예측 불확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간선거 이전에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특히 의욕적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결국, 북미 양측은 향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조합을 만들어 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선전적으로 하느냐, 후로 하느냐에 대해 신중하게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1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1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1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15 8 point

4 6 2 8 1 0 9 7 3
113 6 point

0 7 6 2 1 4 9 0 2
112 5 point

0 3 1 7 9 0 0 2
11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